

# 고국이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될것

## 「로스앤젤레스」 동포 초청 리셉션 연설

1981년 1월 29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포 여러분!

수만리 이역 이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니 반갑고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이곳은 미국내에서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근 20만명의 거주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생을 합쳐 대부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두어 한국인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는 데 대해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바로 겨레 전체와 고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고국도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겠고, 고국에 있는 국민이나 정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면 고국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고국이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고국이 잘 돼야 여러분들도 잘 될 것이라는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고국 대한민국은 비록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조그만 나라이지만 여러분이나 나에게 삶을 주고 언어를 주고 민족혼을 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다운 친척, 그리고 친구, 배움을 준 스승, 사랑스런 후배들이 사는 곳입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당신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코리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국은 우리가 벗어날려야 벗어날 수 없고, 또 벗어나서도 안 되는 운명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리운 산전초목이 떠오르고, 외로울 땐 마음을 의지하는 정신적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국은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새 시대는 명실상부한 민주복지국가와 자주민족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고국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비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쇠약하게 하는 부작용을 빚었던 대결정치, 특혜경제, 부패사회, 타락문화의 제요인을 하나 하나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비원인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1945년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으나 국토분단의 비극이 거기에 동반됨으로써 사실 완벽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셈이 되었으며, 따라서 조국통일을 성취하여 전민족에게 빛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미국은 우리의 선조들이 민족의 자주독립이란 기치를 내걸고 일본식민통치에서 신음했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신 유서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자주민족국가의 건설을 통하여 조국의 완전한 광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서 고생하신 선인들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선인들의 유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여러분들이기에, 조국의 새 시대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참여하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동포 여러분!

새 시대의 건설은 온 국민, 온 겨레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룩해야 할 민족적 과제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결의를 함께 하고 다같이 건설의 삽질을 해 나갑시다. 크든 작든 우리의 조국입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이 시점에서 굳이 따지지 맙시다. 그 대신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부강한 조국, 위대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정열을 아낌없이 바칩시다.

이번 우리 내외의 「로스앤젤레스」 방문에 있어서 열렬한 환영을 베풀어 주신 「로스앤젤레스」 교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환영행사 준비에 온갖 열성을 다해준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 이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성스러운 시대에 과거지사는 크게 책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고국의 사정을 잘 모르게 마련이고, 몇몇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조국이 잘 되기를 두손 모아 비는 마음에서 충격과 심려를 갖게 되는데 심려가 도를 넘치면 울화가 치밀게 되고 울화가 심화되면 할 말 못할 말, 할 짓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과거 반체제다 반한단체다 해서 정부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일부 해외동포들도 같은 할아버지의 핏줄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조국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결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동포들에게 이 뜻을 확실히 전해서 우리 조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직접 돌아보고 해외에서 익힌 지식과 견문들을 조국에 전파해 주고 측면지원해 주면 조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